

종계산업 발전의 걸림돌은 수급불균형이 주범

□ 정리/김종준 기자

본고는 지난 7월 24일 은양 제일 호텔에서 전국 종계·부화 업계 창립 대회 중에 현재 종계·부화 산업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종계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행사에 참여한 종계업자들 중 30개 농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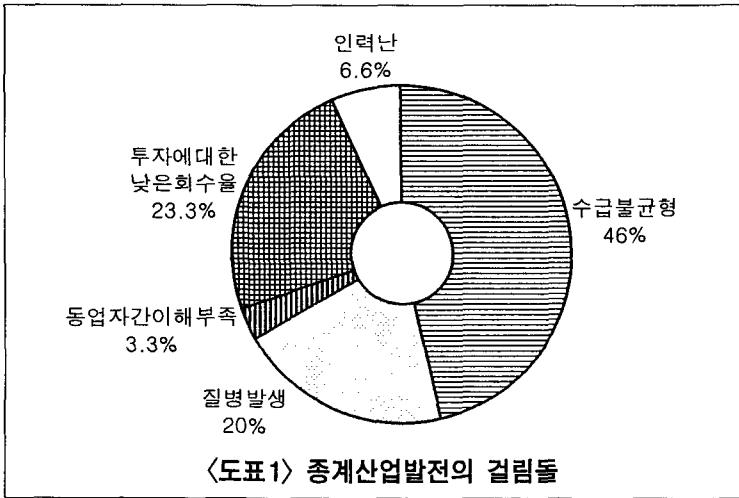
1. 종계장의 평균 사육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가) 5,000수 이하 0%, 나) 5,000~10,000수 20%, 다) 10,000~30,000수 40% 라) 30,000~50,000수 10% 마) 50,000~100,000수 6% 바)

100,000수이상 23.3%로 나타났다. 5000수 이하 사육규모는 0%로 영세사육규모는 생산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소멸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5,000~30,000수를 사육하는 종계장이 전체 종계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어 중소 사육규모형태가 넓게 분포 되어 있다. 반면에 10만 이상인 전·기업형 농장은 23.3%로 과거에 비해 대규모 사육규모가 늘어난 상태이지만 설문 5항에 의하면 농장들의 지속적인 규모 확대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당분간은 종계장의 사육규모는 기존의 규모를 유지할

전망으로 보인다.

2. 종계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의 답변에는 가) 수급불균형 46%, 나) 질병발생 20% 다) 동업자간 이해부족 3.3% 라) 투자에 대한 낮은 회수율 23.3% 마) 인력난 6.6%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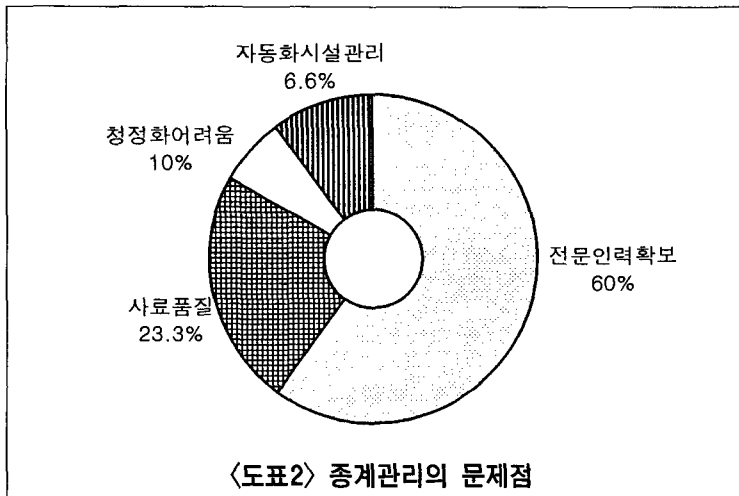
생산자는 병아리 출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가격의 상승 시기에 많은 양의 병아리를 출하하려고 부화율을 높인다. 하지만 시장정보에 어두운 생산자는 어느 수준에서 병아리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지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므로 병아리 시장의 공급이 초과되어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경



우와 일부 종계유통회사의 인위적인 병아리 가격 조절로 생산자들의 수급 조절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46%, 완전한 투자가 끝난 다음 생산효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 의욕의 상실이 23.3%, 질병발생이 20%로 세 가지의 요인이 종계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난제로 부각

되고 있다.

반면에 인력난은 6.6%로 응답하여 시설자동화로 인하여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인 어려움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업자와의 관계의 불화는 3.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종계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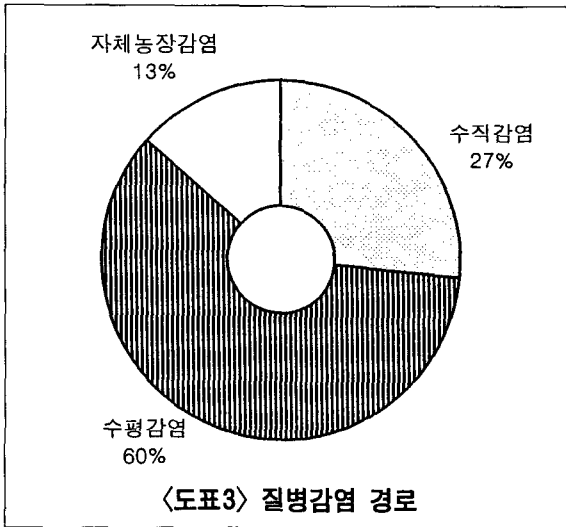


로 조사되었다.

3. 종계관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 전문인력 확보 60%, 나) 사료품질 23.3% 다) 자동화시설 관리 6.6% 라) 주변여건상 청정화의 어려움 10%로 종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종계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대학에서 축산분야 전공자의 취업동향에 대한 양계협회에서 설문조사(월간양계 '96년 6월호)한 내용을 보면 축산학과 졸업생 497명중 축산업계 취업은 142명(28.6%)이고 그 취업자 중에서도 30명(6%)만이 농장에 취업했다. 농장취업자 중 양계농장에 취업한 졸업생은 12명(2.4%)로 조사된바 있다.

그런데 이런 소수 인원의 농장 취업자 중에서도 유동인력이 많아 그나마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사료품질 문제는 23.3%로 종계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현재가 크게 개선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종계관리에 주변의 여건상 청정화의 어려움이나 자동화 시설관리는 수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평감염의 원인은 농장별로 순회하는 사료차량, 혈청검사원, 약품차량에 의한 전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

는 농장경영 현실을 감안할때 시설규모를 늘리지 않고는 시설자동화는 불가능한 면이 있는데 종계업자들은 규모는 확대하지 않고 시설만 자동화한다는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방역관리에 관심은 46.6%로 규모에 관계없이 질병차단에는 관심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종계장의 질병감염 경로에는 가)수직감염 26.6% 나)수평감염 60% 다) 자체 농장오염이 13.3%로 나타났다. 기존의 질병 보균 성계나 질병 보균자를 가진 병아리, 종란 구입에 의해 질병이 종계 → 종란 → 병아리 → 종계로 연쇄적 감염을 일으키는 수직감염이 26.6%인데 이것은 종란 구입시 철저한 샘플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든지 병아리 육성을 열악한 시설의 농장에 위탁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결과이거나 종계의 혈청 검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평감염은 60%로 질병이 농장에서 농장으로 전파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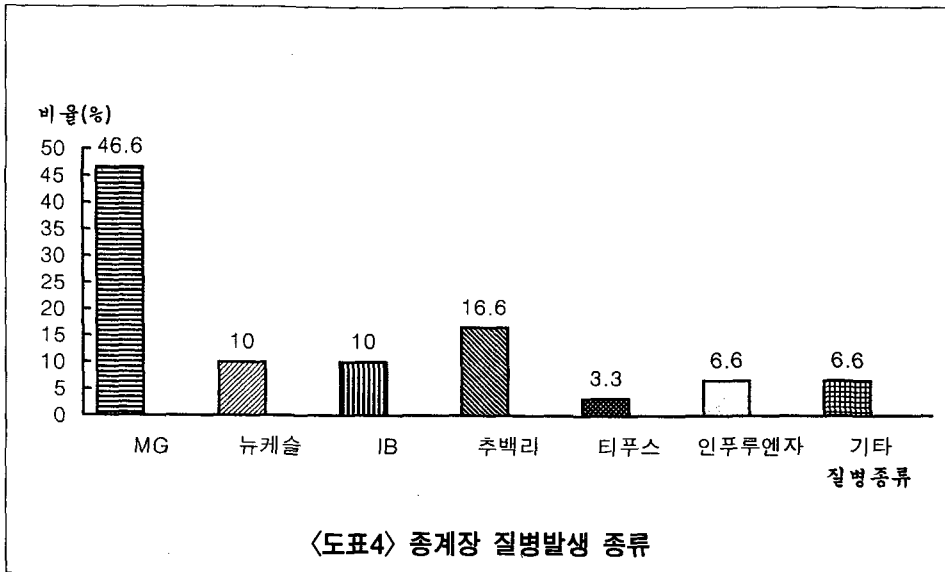
다. 건강한 계군이 농장 자체의 오염으로 질병에 감염되는 사례는 13.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5. 향후 종계장에 투자할 경우 가장 우선시 할 부문은 가) 시설자동화 53.3%, 나) 규모의 확대 0% 다) 방역관리 46.6%로 종계업자들은 시설자동화가 가장 우선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3.3%나 되고 있다.

시설자동화는 종계장에서 인력난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보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육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0%로 조사되었으나 시설자동화를 한다면 소규모농장인 경우 사육규모를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현재 종계장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질병에 대한 응답으로 가)MG(마이코플라즈마) 46.6% 나)ND(뉴캐슬) 10% 다)IB(전염성 기관지염) 10% 라)SP(추백리) 16.6% 마)가금티푸스 3.3% 바)가금인플루엔자 6.6% 사)기타 6.6%로 올인 올아웃을 실행하지 않는 거의 대다수의 농장에는 기존의 계군이나 난계대전염에 의해 MG에 감염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만성형 질병인 MG(마이코플라즈마), ND(뉴캐슬)는 10만수이상의 농장과 5,000 ~ 10,000수 농장에서 두드러지게 조사되었다. 급성형 질병인 추백리, 가금티푸스, 등 살모넬라에 의해 오염된 농장은 20%로 조사되었다.



수 있다. 대단 위 농장일수록 수평감염의 피해는 예측을 불허함으로 철저한 외부 질병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넷째, 종계장 투자에 있어 시설 자동화와 방역관리는 두가지를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종계장에서는 법정전염병에 의해 오염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질병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의 설문 조사에 근거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계농장에서 종계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수급 불균형은 양계시장의 정확한 정보 수집에 근거하여 변화하는 시장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정보수집에 있어 종계장들과 연계한 정보전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양계산업도 전산망 구축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조절의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하여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 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종계업자들도 근시안적 안목을 버리고 거시적 안목으로 미래의 수난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둘째, 종계관리에 있어서 전문 인력의 확보의 어려움은 작업 현장의 작업질의 상승, 복지혜택 부여, 농장의 광고, 비전제시 등으로 전문 인력을 농장으로 유입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종계장의 질병감염은 수직감염보다는 수평감염이 농장규모에 관계없이 월등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외부의 질병 유입 요소 제거에 소홀했거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겸비해야 한다는 농장의 의식은 분명하지만 자금 회전력이 둔한 농장은 고액의 시설을 갖춘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지원체제가 정부나 정책 차원에서 마련되어야겠다.

다섯째, 종계장에 만성형 질병의 보균자로 종계에 기생과 최근의 가금인플루엔자 등 급성형 질병의 다발적 발생은 위생적인 종계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종계장에는 질병을 치료한다는 원칙보다는 예방하겠다는 원칙이 앞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청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할 것으로 이번 설문 조사에서 분석 되었다. **양계**